



# 버냉키 쇼크, 中경제 유동성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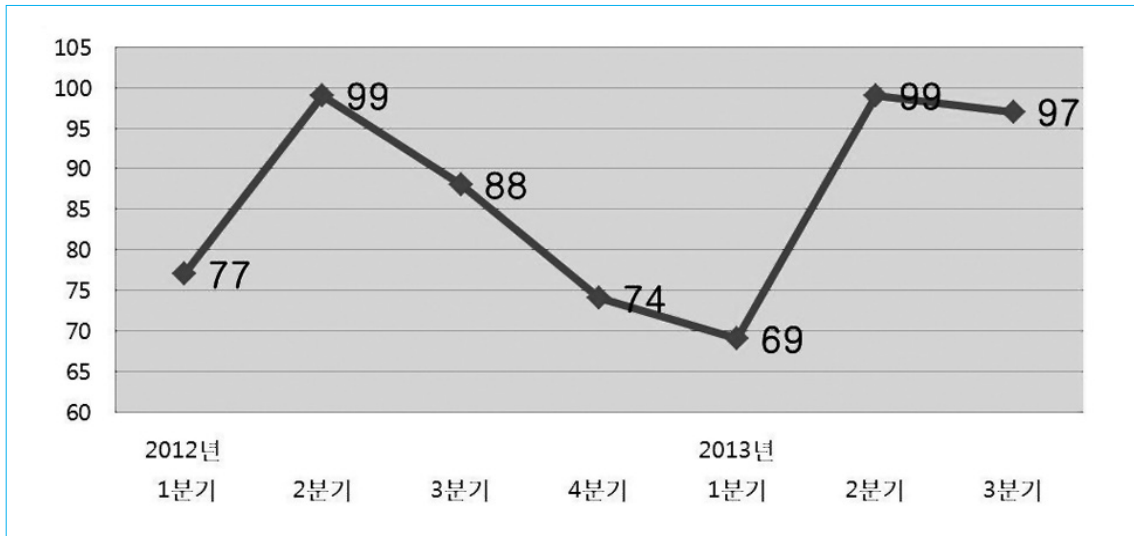
김현희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연이어 악재를 뿜어내며 지구촌을 흔들어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과 중국 경제의 유동성 위기 문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연히 원자재와 건설자재도 그 후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임에 틀림없다.

(2013년 6월 ~ 2013년 7월 자재 동향)

<p><b>강관 및 관련 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분간 단가 인상 가능성 없음.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li> <li>- 구체적 현장 수요 물량일 경우 제조사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폭의 단가 협상 가능</li> </ul>
<p><b>동관 및 관련 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동LME 시세는 53원 인하된 8,287원으로 확정</li> <li>- 국제 동LME 시세는 톤당 6,808~7,421달러 선에서 거래 중. 거래 시세는 6월 중순을 지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과 엔저 현상 등 세계 경제의 난기류로 하락세가 더 지속될 수 있음</li> <li>- 동관은 6월 4주 현재 소폭인하 상태이나 6월말까지의 국제 거래 시세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li> </ul>
<p><b>STS관 및 관련 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STS관 BASE의 유통 가격은 동결 또는 소폭 인하 예상</li> <li>- 국제 시장에서 니켈은 톤당 13,745~15,255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약보합세 전망</li> <li>- STS관은 동관 시세와 유사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 강관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구체적 수요 물량과 제조사에 따라서 추가적 단가 인하 가능</li> </ul>
<p><b>구매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강류 단가는 약보합세이나 엔저 현상과 미국발 악재로 인하여 단가 추가 인하 가능</li> <li>- 가교발포보온재 소폭 인하</li> <li>- SU 파이프 소폭 인하</li> </ul>

\* 대한상의 조사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정리 : 원컨네티웍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던 미국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돈 줄을 조이겠다고 하자 세계 경제가 화들짝 놀랐다. 당장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고 환율과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물경제에도 바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BSI(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했다.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97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엔저 영향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자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마저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리 내수 경기도 받쳐주지 않자 다시 일본식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버냉키 쇼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버냉키 의장 발표 이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하루에 3.4% 떨어져 배럴당 95.1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다. 은(-8.3%), 구리(-0.6%)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에서는 ‘버냉키 쇼크’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10문10답 형식으로 양적완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건설산업의 경우 이번 사태로 자재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지만 동시에 경기 회복도 더 뒤로 늦춰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번 이슈에 대응해야 하겠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 원컨네티웍스 사업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멀티미디어 부문)

- 삼성화재 홍보, 시장개발, 인터넷 사업 담당(사보, 사장단 연설문, 방송PD, 보도자료, 인터넷 기획, 전국 애니카랜덤망 구축 등 담당)